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재열



서민생활 안정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각료들에게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 안정에 둘 것’을 강조했다. 또 골목시장내 떡볶이 가게를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대로 사재 331억4천200만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도 시의적절했다.

서민 살리기는 부자정권으로 각인된 MB 정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 전환이다.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바람직하다.

서민정책은 지방살리기

그러나 아직 국민들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적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싸늘하기만 하다.

서민정책은 지방경제 살리기와 직결되어야 한다. 지방은 대기업이 거의 없는데

서울 부자와 지방 서민

다 알지라 마저 열악해 경제회복이 몇 곱절 더 힘든 상황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공포 얼어붙은지 오래다.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면서 신규 분양이 사실상 꺾졌다. 가격 상승 폭도 제자리 걸음으로 전남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팔아도 서울 강남 아파트 1채를 살 수 없게 됐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로 서민에 대한 기준도 지역별로 차등을 뒤야 하는 시대가 됐다. 광주·전남에서 어렵사리 집 한칸

장만해야 서울 기준으로는 서민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현 정부들어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 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으로 규정하는 인사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요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은 더욱 팽창하고 있다.

특정지역 위주의 인사 독식이나 예산 편중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마저 경제적 타당성 대신 정치적 이

해 관계가 좌우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전체 예산의 58%가 낙동강에 집중 투자되는 4대강 살리기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광주·전남 SOC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5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8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와 38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10여개 지자체가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그러나 현지 실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설이 퍼지면서 일부 지역 의회가 성명을 내는 등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지역 격차가 소통의 걸림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두달이 되도록 우리사회 화두는 여전히 소통이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반면 소통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통을 위해서는 정책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경제 격차나 특정지역에 대한 몰아주기식 지원은 소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선택과 집중’을 밀어붙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위화감은 좁혀질지 만무하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이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정된 국가자원을 적절히 배분해 넘치면 조절하고 부족한 지역을 채워주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논설위원〉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이상욱



지난 6월 7일 새벽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날아온 승전보는 요즈음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 6차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중동의 거센 도래 바람을 잠재우고 아랍에미레이트를 2:0으로 완파하며 멕시코 월드컵부터 7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금자탑을 쌓았기 때문이다.

사우디, 이란과의 예선 최종전 홈경기

대표팀은 노장파 신예의 적절한 조화에는 일단 성공했다. 이제는 강팀과의 평가전을 통해 경기 경험을 충분히 쌓으며 고도의 테크니를 연마해야 한다. 또 현지 적응도 해야 하고 12월에 결정될 상대팀의 전략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잠깐 북한 축구 얘기를 해보자. 우리는 이번에 7회 연속 본선에 올랐고 북한은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 44년 만에 예상을 깨고 본선에 합류했다.

한국 축구여! 다시 한번

결과에 관계없이 본선 직행 티켓을 획득했던 것이다. 이 기록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결국 20년 만에 최종 예선 무패 기록도 세웠다. 월드컵 축구가 국민들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는 7년 전 한·일 월드컵을 상기하면 된다. 붉은 물결 속에서 경쾌한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에서 들끓게 하지 않았는가. 축구가 과연 무엇인가에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는지 우리 스스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감동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넘어 한·일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공격력과 수비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관건이다. 남아공 본선에서는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의 최강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인한 체력과 탄탄한 조직력 그리고 자신감이 필수 과제이며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장기간 합동, 합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K-리그 구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지금

남북은 최종 예선에서 같은 조에 편성되어 본선 진출 과정에서 상부상조한 셈이 되었다. 본단국가가 본선에 동반 진출한 것은 1974년 서독 월드컵 때 두, 서독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동반 진출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점은 높이 살만 하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냉랭하게 얼어붙은 불안한 정세 속에도 북한도 함께 남아공 가지며 많은 팬이 북한을 응원했다. 언젠가 남북이 정치적으로 경색되어 있을 때 스포츠는 화해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번 월드컵 본선 동반 진출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그 어떤 실마리라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자, 대한민국 축구여, 내년 6월11일 개막이니 1년도 채 안 남았다. 이제 본격적인 도전의 시작이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협회 그리고 K-리그 구단들은 일치단결하여 지난번 독일 월드컵 16강 좌절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해서 남아공 땅에서 한국 축구의 꿈을 다시 한번 이루어보자. 〈수필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자전거도 차’ 법규 잘몰라 사고때 보상 손해 많아

현재 우리 광주에서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캠페인이 벌어지고 그 인기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이 아주 낮고, 그 때문에 자전거에 적용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피해시 보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 행위로 인정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런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시민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전거의 이용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시켜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건 어떨까 한다.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초동

기고

김세영



두 마리의 쥐가 크림 통에 빠졌습다. 첫 번째 쥐는 금세 포기했고 익사했죠. 그러나 두 번째 쥐는 크림을 휘저어 버터가 될 때까지 싸우고 투쟁해서 밖으로 기어 나왔습다. 저는 바로 그 두 번째 쥐입니다.

몇 해 전 나온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명대사다.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역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주장에 자주 인용되는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60만6천명에 비해 5.9%가 늘어난 수치다. 신종플루가 해외여행객들을 발을 붙든 셈이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한식의 효능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내놓는 등 한식 열풍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비빔밥’으로 산후 몸매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치를 비롯한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

신종 플루, 그리고 김치

우화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감염양상을 보면 가히 위기라 할 만하다. 지난달 1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 경보단계를 ‘대유행’을 뜻하는 6단계로 끌어올렸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3만명을 넘어섬에 따른 조치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현재 감염자는 미국·멕시코를 비롯한 전세계 76개국에서 3만 5천928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목숨을 잃은 환자도 163명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환자가 67명(누적환자 319명)에 불과해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본과 같은 빠른 전파속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감염자들도 대부분 완치돼 경보단계가 2단계인 ‘주의’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유행했던 조류독감 예방효과에 김치가 한몫했음을 떠올리며 신종플루 예방에도 김치가 효능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신종플루는 관광 흐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59만6천명, 외국인 4만6천명 등 모두 64만2천명으로 집계돼 월 단위 사상최고로

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음식강국에 밀려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소비량은 미미하다. 신종플루의 유행과 한식 열풍을 틈타 차체에 마케팅을 서둘러야 한다. 김치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알려나간다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또 김치뿐 아니라 비빔밥 등 한식을 세계화하고 문화상품화하기 위해 맛의 표준화와 더불어 젓가락 사용법 등 우리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담아 수출할 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자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농업이 추구하는 가치도 함께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영화 ‘워남소리’에 나온 주인공 할아버지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농심도 홍보돼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문화와 조화롭게 연계된 참다운 먹을거리가 곧 세계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화에 나온 두 번째 쥐가 크림통속의 크림을 치즈로 만들 듯이 신종플루 확산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농촌 외국인 노동자 인력동원 사기 극성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준게 외국인 인력이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우리 농민들을 은근히 괴롭힌다는 소식이 들린다.

얼마전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고향영농단지에서 함께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두달간 일을 한 거 떠나서는 경찰에다가 우리 농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외국인에게 손해금을 한 일은 없어서 벌임 없이 풀려났다. 그 사람은 자국에서 함께 들어온 다른 동료와 그 비슷한 사례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랬다는 것이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농민들을 속이려고 날뛰는 모양이다. 심지어 어떤 농가에서는 일당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해서 그걸 해명하느라 며칠씩 불려다녔고 그 때문에 농가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당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꾸미려고 하는 국내 전문 브로커들의 조종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기 바란다.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설

‘반찬 재사용 금지’ 음식문화 개선 계기로

지난 3일부터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잔반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잔반 재사용 금지 조치를 우려하는 업소가 적지 않다. 취지는 좋으나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판에 반찬마저 적게 내놓으면 손님 발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잔반 재사용 금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광우병·멜라민 파동 및 파르티면서 다종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는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하루 200여씩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음식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한 상 가득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남도의 한정식 식단에도 변화가 불

가피하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먹을 만큼만 음식을 제공하는 개량식 단계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광주·전남 식당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한정식 식당에서 뷔페 형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잔반 처리과정을 CC-TV로 공개하는 식당도 생겨났다.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은 법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주문식단체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개량 용기를 보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하는 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시설개선비용 지원과 홍보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를 부터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투자 되살려 잠재성장률 추락 막아야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연구기관 등이 2007년까지만 해도 4.5%~5.0%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올해는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번 떨어지면 쉽게 회복이 안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큰 적정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3%대라면 아무리 세계 경기가 풀리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져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3%대에 그친다. 그만큼 일차적 창출이나 소득 증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 간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1982~1990년 기간에는 8.6%에 달했던 수치가 1991~2000

년 6.3%, 2001~2005년 4.4%로 내려앉더니 급기야 3%대로 추락했다. 소비와 투자가 내년도에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 2%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이 잠재성장률의 추락은 기업의 투자환경이 나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가 줄면서 성장률이 푹 떨어진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기술적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잠재성장률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활발한 기업 투자만이 경제 성장 능력을 높이고 빈곤층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 교육, 금융 등 낙후된 서비스 산업에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SOC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고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2류 국가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無等鼓

강원도 정동진(正東津)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 쪽으로 내달으면 도달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반대인 정서진(正西津)은 충남 만리포로 짐작된다.

정남진(正南津) 역시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도착하는 나무, 곧 장흥을 이른다. 정남진은 광화문에서 정북 쪽에 위치해 가장 추운 중강진과 일직선상에 있기도 하다.

정남진 풍물시장



정남진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풍물시장이 아닐까 한다. 2005년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이 풍물시장은 전국 최초로 기록된다. 1만3천200여㎡(4천여평)에 달하는 기존의 5일 장터를 11개 동, 133간의 상가로 개조한 것까지는 어느 재래시장

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 장터 주변을 돌면 ‘아,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는 평한 감동을 받는 다.

팔각거리는 호박엿장수 할아버지의 가위소리에 장단을 맞춰 목기상 굿, 천연염색 도자기전 굿통 하다 보면 하루가 노루꼬리보다 짧다. 한우·표고버섯·키조개로 구성되는 ‘장흥삼합’에 배부르고, 알차한 물회를 그릇이면 부러울 게 없다. 11개국 여성들이 자국의상을 입고 고객들을 맞는 다문화 거리에 들면 외국적인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이 풍물시장이 최근 개장 4주년을 맞았다.

일손을 타면서 수석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남진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풍물시장이 아닐까 한다. 2005년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이 풍물시장은 전국 최초로 기록된다. 1만3천200여㎡(4천여평)에 달하는 기존의 5일 장터를 11개 동, 133간의 상가로 개조한 것까지는 어느 재래시장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赫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개발부 2200-679 제 육 팀 2200-663 자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교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